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성 개선과 향후 과제

최 원 선임연구원

■ 2014년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시장은 요율 인상에 힘입은 원수보험료 증가와 사업비율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됨.¹⁾

- 2014년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58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요율 인상이 시작된 2011년 원수보험료보다 46억 800만 달러 증가한 것임.
 - 미국 영업용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원수보험료 증가세가 계속됨.
- 2014년 합산비율은 103.3%로 최근 4년 동안의 합산비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사업비율이 28.2%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기 때문임.
- A.M. Best 회원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14년 영업용 자동차보험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1.1% 증가함.

〈표 1〉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합산비율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원수보험료	21.2	22.2	24.0	25.8
손해율	59.8	63.2	62.9	62.6
손해율 (손해조사비 포함)	71.6	75.5	75.7	75.0
사업비율	31.7	31.3	31.0	28.2
계약자 배당/ 경과보험료	0.1	0.1	0.1	0.1
합산비율	103.4	106.9	106.7	103.3

자료: A.M. Best.

〈그림 1〉 미국 영업용 자동차보험 요율 변화율(분기별)



자료: A.M. Best.

■ 그러나 이와 같은 수익성 개선의 원인이 대부분 요율 인상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요율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소멸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큼.

1) A.M. Best(2015. 12), "Commercial Auto - Uncertainty Remains".

- 2011년 2/4분기부터 요율 상승세가 계속되었으나 2013년 2/4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요율 인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4년 손해율²⁾은 62.6%로 2005~2011년 평균 손해율인 54.7%에 비해서 7.9%p나 높은 수준이며, 2015년에도 높은 수준의 손해율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보험금 지급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손해액이 늘어난 것은 사고로 인하여 지급되는 의료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임.
 - 2014년 언더라이팅 이익이 원수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최근 5년 기간 중 가장 양호한 실적³⁾을 나타냈으나, 그 이전인 2006~09년 기간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임.
 - 미국의 완만한 경제회복세와 낮은 유가 수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자동차 운행량 증가와 자동차 사고 증가는 손해율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이익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운전자 특성, 운전자 습관 등을 언더라이팅과 요율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운전자 특성과 운전자를 둘러싼 다양한 내·외적인 환경 요인 등을 언더라이팅에 반영함.
 - 예를 들어, 대형 자동차 사고 원인이 운전자 실수와 크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리스크에 접근하기 위해 운전자의 생년월일, 결혼 여부, 운전경력, 사고 횟수와 유형, 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
 - 운전자성향보험(UBI)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운전자 습관을 언더라이팅과 요율 산정에 반영하고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함.
 -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보험 회사의 3분의 1 이상이 운전자성향보험(UBI)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발전으로 인한 텔레매틱스 장치 가격 하락이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
 - 우버(Uber)와 리프트(Lyft)와 같은 운송네트워크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와 관련한 규제 문제가 해소되면, 운송네트워크와 관련한 요율 산정이 가능해질 것임.
 - 운송네트워크회사 운전자 사고가 개인용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인지 영업용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 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고, 몇몇 주에서는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
-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시장도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최근에는 금융규제 개혁 추진으로 인해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해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과 요율 산출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A.M. Best 등)

2) 실제 발생 손해(incurred loss) 기준 손해율임.

3) A.M. Best의 회원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임.